해피밀 시즌 6-10호를 발간하며, 참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추수의 가을이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11월에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1월의 해피밀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나와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해피밀을 통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과 열방을 향해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11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 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illegible]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illegible]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가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illegible]리스도 로마 신화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태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아가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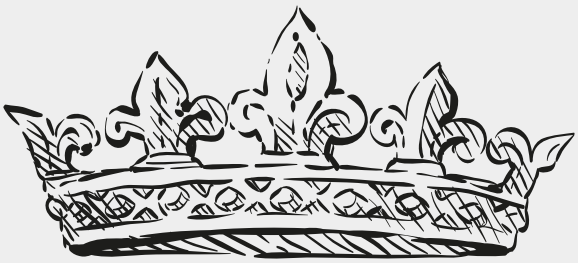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세요.



마태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태복음 읽기

마태복음 7-9장

다른 옵션은 없다(마 7:21)

오늘날 우리는 양극단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정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중도, 중용, 중립이라는 가치가 더욱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도의 길 속에서 '진리'는 안개 속에 가린 듯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별의 양극단을 배척하는 시대, 옳음과 그름을 정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시대, 타인의 의견도 존중해주며, 옳음으로 인정해주라고 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의 옵션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세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선택의 유보도 없습니다. 두 가지의 양 극단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13-14절 말씀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석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나무의 비유는 두 가지의 나무만 등장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더 고민할 필요없이 명확한 답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장되며, 두 부류의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이 앞서는 부류입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오해를 불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22절 말씀에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권능을 행함, 귀신을 쫓아냄. 이러한 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말입니다. 진짜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씨앗으로 자라나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심겨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나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를 외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묵상질문

1.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2. 말로만 고백하던 믿음을 오늘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0-12장

준비하지 마세요(마 10:9-10)

저의 MBTI는 ENFP입니다. 그런데 가끔 필요에 따라 ENFJ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해설을 해보자면, 원래 본성적 성향은 즉흥적인 사람인데, 때에 따라 계획형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획형이 될 때에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혹은 가족 여행을 준비할 때입니다. 작년 여름 대관령으로 가족여행을 떠날 일이 있었습니다. 양떼 목장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 가는 양떼 목장이라 J적 성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 필요한 것들을 이것 저것 챙기며 준비했습니다. (애들 걷기 힘들어 할 수 있으니) 접이식 유모차, (햇살이 따가울 수 있으니) 우산, (목 마를 수 있으니) 물통을 챙겨 양떼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계획과 준비는 끔찍한 올무가 되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기에는 양떼 목장에 비포장 도로가 많았고, 우산을 쓰기에는 구름이 자욱했으며, 목 마르기에는 매점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짐은 저의 올무가 되어, 다신 양떼목장에 가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가볍게 보내셨는지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가볍게 보내셨을까요? 제가 묵상하기에 그 길은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으로 미쳐 다 준비할 수 없는 고되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사람의 방법으로 예비해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가 받게 되어질 상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분만이 고된 십자가 길에 유일한 공급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길 결단하여, 두 손 가볍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부족함 없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때 두 손 가볍게 양떼 목장을 갔더라면, 유모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을 것이고, 이미 마련해두신 구름 장막 아래에서 시원한 고랭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의지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오늘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15장

두 모습(마 13:24-30)

대학생 시절 때 농촌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가라지를 뽑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이 제법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진짜 모종을 분별하는 방법은 제 경험상 딱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그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모종의 뿌리는 하얗고 뽀얀 반면, 가라지는 빨갛고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곁 길로 빗겨난 것은 대체로 가라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에 가지런히 일 자로 심는데 가라지는 그 일자 길에서 벗겨난 녀석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 가라지를 뽑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씨를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예수님의 비유를 짐작해보건데 이 사람은 좋은 씨를 길 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며,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앗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씨를 탕진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종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라지를 안 뽑는 이유는 뽑다가 혹여나 곡식이 상할까 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탕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도 같은 이들을 포기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곡식을 참으로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곡식 곁에 가라지와 같은 불순물이 있지만, 예수님은 곡식이 상할까 가라지를 내버려두십니다. 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인내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또 뿌리시고, 우리의 가라지를 성급히 뽑지 않으시며, 우리가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두 가지를 점검해봅시다. 먼저 내 삶에 일어난 행동, 그 행동의 근원적 뿌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의 삶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묵상질문

1. 내 말과 행동의 뿌리에 자리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2.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 바꿀 모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18장

강력한 구속력(마 18:32-33)

얼마 전 산책을 하며 이러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나름대로 그 묵상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은 확실히 효력이 있어보입니다. 집 계약서가 효력이 생겨 당사자들의 연대시켜주고, 또 혹시 모를 악한 마음으로 부터 보호해주듯이 법조문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만료기간이 도달하면 그 연대의 효력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조문 보다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법조문이 없어도 보호하고, 지키며, 희생케하고, 품어내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법조문 하나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포기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다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잊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스위치를 껐다 끄는 것처럼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구속력이 있어서, 한 번 사랑에 빠지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일만 달란트 빚을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했던, 영겁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빚진 자를 향해서도 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이들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랑의 빚으로 인하여, 용서하고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율법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 빚진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에는 늘 불이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 불 붙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슴이 또 아픕니다. 그러나 또 다시 용서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강력하게 구속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슴을 뜨겁게하고, 또 동기가 되어 활력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빚진 마음입니까? 이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내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2.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9-21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마 21:2-5)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 또한 몸소 좁은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걸어가시는 좁은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시며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시는 것을 마태복음의 기자는 스가야 9장 9절 말씀의 성취로서 '겸손'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좁은 길은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수 많은 악이 존재 합니다. 죄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양상들의 원초적인 동기는 바로 겸손의 반대인 교만입니다. 사단이 타락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이러한 오해를 합니다. 죄의 특정한 항목들이 있어서 그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열심을 다해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 파도가 치는 것, 자연 시스템은 여전히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인간만 유별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벗어납니다. 마치 큰 풍랑과 큰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요나만 불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요나 같은 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받는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속에 겸손의 왕으로 친히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 아들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오늘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마 18:21-35)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입니다
찬송가를 통해 가사를 찾으시고, 오른쪽 QR코드로 반주 삼아주세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결속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허물을 덮어주도록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러한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본문

[마18:21-35]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나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많은 약속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는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고, 여기부터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정해 놓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고, 기다려 주고, 용서하고, 때로는 대신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큰 빚을 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지?” 그러면 쉽게 용서되지 않더라도 다시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렵더라도 다시 사랑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라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규칙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끼리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조금 더 사랑합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질문

1. 오늘 내가 용서하거나 사랑해 주어야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2.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기를 결단해봅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24장

이상한 내 목소리(마 22:41-46)

노래를 잘하려면 내 노래를 객관적으로 듣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 보지 못합니다. 듣는 일이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톤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음정과 박자는 여기저기 어긋나 있습니다. 기대했던 내 모습이 실제로는 한참 못 미치는 걸 확인하는 순간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집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혼자 노래방에 가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내지르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 한계를 마주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때는 고난주간 화요일이고, 장소는 성전 뜰입니다. 이 무렵 논쟁의 중심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권위가 낮아지고, 지키던 밥그릇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무리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세금 문제로, 사두개인은 부활 문제로,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 문제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계속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답을 붙잡고, 그들이 자기 생각의 한계를 직시하도록 이끄십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녀를 주님이라 부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회복할 사람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방식과 대상과 능력도 그들의 생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자기 노래가 괴로워도 들어야 고칠 수 있듯,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자기 경험과 생각에 갇힌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왜 "내 주"라고 불렀을까요?
2. 요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28장

나의 열심으로는(마 26:36-46)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형편이 모자라고, 상황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할 때면 참 헛헛합니다. 실망한 아이의 얼굴을 볼 때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더 서글픈 건,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했느냐고 묻는다면 아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열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로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고, 조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참 약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할 만큼 약합니다. 마음은 원해도 끝까지 깨어 있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결국 죄인의 손에 팔리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맛만 보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시 75:8). 아멘. 그 잔은 본래 죄인인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단 한 모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찌꺼기까지 다 마시시고, 우리에게는 언약의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질문

1.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떤 잔을 마시기로 순종하셨나요?
2. 내 열심과 결심으로 해내려다 무너진 일은 무엇이고 그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가복음 읽기

마가복음 1-5장

원하시면, 원하노니(막 1:40-45)

군대에서 가장 힘들기로 유명한 3대 훈련은 화생방, 유격, 행군입니다. 훈련마다 특색이 있어서 무엇이 더 힘든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 화생방 훈련은 전쟁 중 화학 가스 공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이때 외치는 구호가 "가스, 가스, 가스"입니다. 가스 공격이 시작되었으니 대비하라는 외침이죠. 주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아차리고 대비합니다.

나병환자들도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고하고 거리를 두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40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나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건 확신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실지 몰라서 주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마음도 있는 분이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치신 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서 이 일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부정은 거룩한 것에 옮겨 가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리셨습니다. 부정한 몸에 손을 대셨는데,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에게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그가 있던 바깥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진영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외쳐야 할 사람도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히 13:12). 그 십자가로 우리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능력도 있고 원하시는 마음도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원하시면" 하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나라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질문

1. 나병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무엇을 확신하지 못했나요?
2. 나는 주님 앞에서 "원하시면" 하고 주저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마가복음 6-10장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막 6:45-52)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 손을 떼고 잠들어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태엽만 감아 놓고 떠나듯, 이제 세상은 알아서 굴러가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삶을 꾸려 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보살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손을 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자 밤새 괴로이 노를 저으며 기진맥진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ㄷ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그친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나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풍랑을 잠재워 줄게", "나는 너희가 따르던 나사렛 예수란다" 같은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나다." 단순하지만 파워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두려워 얼굴을 가린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니"라는 말은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 상황도 처음부터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45절을 보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노 젓느라 정신없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기적과 치유로, 비유로 늘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로 둔해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나는 바다도 그 여정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보다 "내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분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안심의 근거로 주셨나요?
2. 이미 받은 은혜를 잊고 눈앞의 바람만 보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마가복음 11-16장

믿지 못해도(막 16:1-8)

함께 사역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다 보니 맞춰 가는 데 힘이 많이 듭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설득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소모적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해도 그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헌신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마침내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활을 정말 믿고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시신에 바를 향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는 길 내내 걱정한 건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 보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흰 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또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도망친 제자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뻐 뛰어가 전했을까요? 8절은 그들이 무서워 떨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참 서글픈 장면입니다. 피 흘리고 살이 찢기신 주님을 누구도 제대로 알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동역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천사는 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2. 주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느껴 다시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은혜를 깨닫는 가정(막 6:45-52)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302장)**"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붙드시어 결국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본문

[막6:45-52]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말씀나눔

가정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가족 사이에 말 한마디로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탓하거나 혼자 끙끙 앓으며 버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에 올랐지만, 밤새 괴로이 노를 저으며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모두 주님 손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된 건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는 바람도 주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오병이어로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함께 건너온 은혜를 금세 잊고, 지금 불어오는 바람만 바라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을 먼저 그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려 주셨습니다. 이 "내니"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직접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오셔서, 죄와 죽음의 풍랑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바람 앞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바람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주님이 보고 계셔" 하고 서로 붙들어 주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배에 오르신 주님을 모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이 한 주를 건너가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질문

1. 이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던 적이 있나요?
2. 요즘 우리 가정에 부는 바람 속에서 함께 기억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누가복음 읽기

누가복음 1-4장

끝없는 유혹(눅 4:1-2)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충만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도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과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능히 시험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더 성숙한 삶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빈곤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부른 것이 곧 구원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귀한 삶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며 만일 그가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장 높은 영광과 권세를 놓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도 내려놓으셨으며, 자원하여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친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훅하겠지만 기적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혹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외치며 그분의 사역 도중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자신을 과시하고픈 욕망에 휘둘립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날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충만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2. 세상과 타협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오늘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8장

평판(눅 40:30-32)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꽤나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시대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매국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은 세금 중 일부는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세리와 함께 다니신다면 예수님의 평판도 같이 내려갈 텐데,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전혀 망설이지 않으시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는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념으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뿐 아니라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과 죄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시편 1:1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따라야지만 악에 물들지 않고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대로 악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 생명력과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다 보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12장

능력과 권위(눅 9:1-2)

9장 말씀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에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란 원어로는 '뒤나미스'인데 이것은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위는 '엑수시아'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 권력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했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과 길이란 예수님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 의지,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 위해선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선 그분의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들만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든지 복음전파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환대와 환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절당하고 멸시당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간구하십니까?
2. 나의 힘으로만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가 지쳤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3-16장

안식일(눅 13:1-2)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18년 동안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몸이 고부라져 있던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선 이미 일이 진행된 완료 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 이미 그 여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복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굳이 그분의 손을 대셨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며 손가락질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이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웃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갖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몸만 꼬부라져 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수많은 상처로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일부로 이미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자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사역에 대하여 그곳에 있던 회당장은 화를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세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노동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의 입장에선 이미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었으니 굳이 오늘 안식일에 그녀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당장은 그 여인이 하루 더 고통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이연이 이미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에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안식일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되 주님의 뜻대로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사랑과 즐거움을 이웃과도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한 영혼보도 규정을 우선순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7-20장

감사란 믿음이다(눅 17:17-19)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외쳤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인들과 섞여 지낼 수 없었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내게 접근해 오면 돌을 던져서라도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얻은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죄인 취급 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길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는 말은 '완쾌'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현장에서 이미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웃과 생명을 살리는 언어생활을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함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열 명의 나병환자 중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병이란 다른 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 병이었기에 나머지 아홉 명은 모두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을 향해 재빨리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망각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집중하였던 사마리아인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은혜를 받는 것보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2.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난과 슬픔의 때에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감사는 믿음의 고백(눅 17:11-19)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무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순종과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본문

[눅17:11-19]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눅 17:11-19)

우리 친구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부모님과 친구한테 얼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이라 칭찬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러자 저 멀리서부터 열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우르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알고 보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한센병이라고도 해요. 이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고 결국 목숨을 잃게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르시길 가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찾아가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자신의 몸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였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열 명중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에게 베풀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크고 복된 은혜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또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나눔질문

1.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있나요?
2.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하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1-24장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눅 22:39~46)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 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도 두려웠으며,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마음과 영혼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시험거리가 있으면 시험거리가 있는 대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마음이 앞서려고 할 때,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식과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2.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나의 마음과 영혼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한복음 읽기

요한복음 1-4장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2-18)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특권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성공 여부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또한 우리의 의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뿐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넘어 그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죄인 된 존재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로 그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 그를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할 수 없던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어려운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8장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5-40)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돌보시기 위해 내려주셨던 만나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배고픔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심을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실의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영원히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마음 한편에 공허하거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 여기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하기에 부르십니다. 죄가 있기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시고, 그 분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달려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매개체는 무엇입니까? (고난, 어려움, 감사제목, 공허 등)
2. 오늘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독대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9-12장

우리가 들어야 하는 목소리(요 10:1-6)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인생의 선배의 말을 귀담아듣기도 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유행과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염려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존재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5절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바르게 깨달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어긋나고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길을 가리킬지라도,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려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2. 오늘 하루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16장

서로 사랑하라(요 13:31-35)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자신들의 것들을 요구할 때 떠나버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계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 놓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자랑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자 발버둥 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 평소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요 13:31-35)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 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본문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나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이 드리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려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손해를 감수하며, 자존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최근에 서로가 미워 보였던 적은 언제인가요?
2.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섬겨야 하는 가정의 일은 무엇인가요?
   서로를 섬기기를 다짐하고, 내가 먼저 실천해보는 하루를 보내 봅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